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4 ~ 9/3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달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비 신발승기 경무 당산적	모과나무	7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홍일	불광출판사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8	불교 인식론과 논리학	카즈라 쇼류	운주사
4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9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기둥)	김재일	책앤
5	사람이 온대(화해)와 치유(힐링) 그림책	이영철	해조음	10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보요)	수불	김영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신미대사가 한글 자모 만들어”... 새 주장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지음  
작가정신 펴냄  
1만5천원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의 초빙을 받아 집현전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미대사는 모음과 자음을 범서(梵書)에서 착안하여 훈민정음을 마무리 지었다.”

지금까지 한글(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설가 정찬주가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통해 세종과 함께 한글을 창제한 것은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라 당시 범어(梵語)에 능했던 신미대사였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소설은 신미대사가 세종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28자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비밀을 파헤친다. 서두는 북한사에 전해지는 <신미당 수암 대선교종사 실기> 중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기록이다. 소설은 <조선왕조실록>, <사리영웅기> 등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던 ‘신미대사’라는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소설이 주장하는 신미의 역사적 존재가 사실이라면 ‘한글 창제’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에서 ‘신미’라는 이름을 왜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소설은 조선시대 세종 2년(1420), 흥천사에서 열린 원경왕후의 4재에 참석한 세종과 사미를 갖 지난 신미가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날 신미는 스승 함허의 지시에 따라 엽불을 외우게 되는데, 어머니 원경왕후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겨 있던 세종은 맑고 청아한 신미의 엽불 소리에 위로받는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세종은 이른바 ‘대장경 외교’에 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함허와 신미를 은밀히 궁으로 부르는데, 이때 신미는 임금인 세종에게 모든 백성이 ‘대장경’이나 유가의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한자가 아닌 우리 글자를 만들어달라고 청한다. 이후 세종과 신미는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세종이 즉위한 지 19년(1437)이 되는 초가을, 신미는 대자암에서 세종이 알려준 글자 원리를 가지고 범자의 자음과 모음처럼 가획(加劃)을 해가며 글자를 연구한다. 때문에 저자는 “한글 28자는 절에서 태어난 것이다.”고 말한다. 세종 20년(1438) 신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 세종은 신미가 자유롭게 궁궐을 출입할 수 있도록 신미를 집현전 학사로 제수하지만 유신들의 질시와 끈질긴 모함으로 신미는 집현전을 떠나 정음청(正音廳)이라는 임시 관청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1438년, 우리 글자 28자가 완성되고, 신미는 처음으로 <원각선종석보>를 우리 글자로 이해하여 출간한다. 이것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집현전 학사들에게 공개하기 5년 전의 일이었다.

소설에서 세종은 신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다. 우선 ‘송유역불’이라는 건국인이 ‘신미’라는 ‘불명(佛名)’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명나라를 섬겨야 하는 조선에서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미 자신도 보이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기에 ‘신미’라는 이름은 찬란한 역사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은 최근에 발견된 <원각선종석보>가 한글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였다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보

- 세종, 신미 보호 위해 밝히지 못해
- 방증자료, 신록 등 문헌 곳곳서 발견돼
- “세종은 ‘역불’ 아닌 ‘송불’의 임금”
- 고종 통해 ‘한글창제’ 비밀 풀어내
- 팩션 넘어 역사적 복원 시도

여준다. 신미대사가 만든 훈민정음 언해본 <원각선종석보>의 발간 시기는 1483년으로, 세종의 한글창제 반포(1446) 8년 전이었다. 이는 훈민정음이 이미 8년 전에 비밀리에 만들어져 신미대사와 수암, 안평 등에 의해서 실험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글창제와 관련된 ‘범자 모방설’은 신미의 한글 창제설의 사실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조선 초 유학자인 성현의 <용재총화>나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는 “언문이 범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소설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한글 창제의 진실을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풀어간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일반적인 팩션과는 다른 것으로, 흠속에 묻힌 유물을 건져내듯이 시절에 묻힌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아내는 ‘작

업’으로 볼 수 있다.

“전하께서 <석보상절>을 참고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훈민정음으로 지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쳐듯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가 온 백성에게 드리우는 노래이니 글자 그대로 <월인천강지곡>이 되었구려.”

세종은 오백팔십여 장(章)의 <월인천강지곡>을 몇 달 만에 지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찬불가라고 할 수 있는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탄생했다.

“<대장경>을 무지렁이 백성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가엾어했던 두 사람. 하여 조선의 글자를 꿈꿨던 두 사람. 두 사람은 우리 글자를 만들며, 천 개의 강에 비치는 달빛과 같이 만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싶었던 것이다.

소설은 ‘한글 창제’의 주역이면서도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통해 유·불의 갈등과 왕권과 신권의 대결 등 한글 창제를 둘러싼 시대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세종 31년(1449) 12월 6일, 세종이 내불당 불단에 친히 공포를 올린다. 세종의 명으로 내불당 마당에 도열한 261 명의 유신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송유역불의 이름을 받들어야 할 임금 세종이 공개적으로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송유’를 내건 나라 조선, 그 조선의 임금 세종은 ‘송유’가 아닌 ‘송불’의 임금이었다. 소설은 두 개의 큰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한글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조선의 임금 세종이 ‘송유’의 임금인 아니라 ‘송불’의 임금이었다는 것이다. 소설은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려며, 한편으로 한글 창제에 영향을 끼친 불교가 우리 민족 사상의 중심임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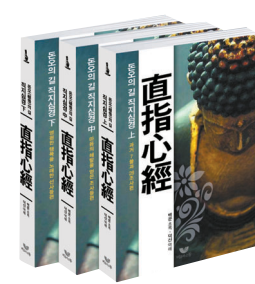
<천강에 비친 달>은 방대한 지식과 예리한 역사의 식으로 엮어낸 서사와 역사적 현장에 직접 들어온 듯이 생생한 묘사, 인간사에 대한 밀도 높은 통찰력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이는 문학적 ‘허구’를 넘어 역사적 진실의 울골은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소설’의 지평을 넓혔다.

박재완 기자

##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一心)’

<직지심경> 3권

백운 초록 | 덕산 역해 | 비움과 소통 | 전3권 4만2천원



<직지심경(直指心經)>은 고려시대의 고승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 선사(僧)가 폐년 공안(公案·화두) 위주의 선문답 모음집으로 선(禪)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선종 사에서 귀중한 문헌이면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서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책은 그동안 역사 교과서나 박물관에서만 마주하던 <직지심경>의 고귀한 정신을 저자인 덕산 스님이 엮음본(念佛禪)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로, 저자인 덕산 스님이 2006년, 2009~2010년에 청주 시민과 불자들이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지심경>은 선(禪)의 수행 지침서로서, 중심 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사람의 본래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르침이다.

<직지심경>을 줄여서 부르는 <직지>는 1372년(공민왕 21)에 저술되었다. 1377년 청주목의 홍덕

행자는 물론 간경, 엽불, 다라니 등 모든 불교 수행자들의 마음공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中)권은 <직지> 원문의 상권에 수록된 중국의 조사 48분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한 것이다.

하(下)권은 <직지> 원문의 하권에 수록된 중국의 선사 90분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한 것이다.

선(禪)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 법등을 이어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다.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도 곧 나의 마음이다.”고 했다. 이것은 선이 언어 이전의 진실한 마음을 찾는 수행임을 말해준다. 선지식이 수행자의 참문(參問)을 받으면 주장자를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을 세우거나 발을 들어 올려서 가르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또한 선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종지를 전할 수가 없다. 선지식들의 언행을 기록한 선어록들은 언어와 문자를 부정하는 말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부정은 또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부정하는 모순이 바로 선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번뇌 망념에 의한 분별지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무분별지(無分別智)의 희귀아발로 선어록이 간행되는 이유일 것이라 생각된다. 선가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선어록은 모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저술된 것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번에 덕산 스님이 역해한 <직지심경> 또한 그러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안집인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설, 아난으로 이어져 온 인도의 조사들과 달마 조사 이래 중국 선종 조사들이 이심전심으로 이어 온 심지(心地·마음자리)에 즉입하는 골수법문으로 일컬어져 왔다.

덕산 스님은 <직지심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돈오의 길 직지심경>을 통해 엽불수행으로 체험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一心)’임을 밝히고 있다.

간화선(看話禪)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는 출가 수행자나 바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여가가 없는 재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이 결코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차 마시고 밥 먹는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저마다 지닌 불성을 가리키는 성품이나 본래면목, 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진여자성에 마음을 두고 수행할 경우 참선이나 엽불, 절하기, 사경과 같은 다양한 수행법이 모두 불초(佛祖)의 안심(安心) 법문을 체득케 하는 방편이란 법문은 다양한 수행법을 가진 구도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www.emille.kr

# 이시밀로-이권

## 신라 소리축제 2014

2014. 10. 9(목) ▶ 12(일)  
낮 10:30 ~ 밤 10:30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신라 왕정에 울리는 천년의 소리

대 신라왕국 체현 축제

- 세계의 종 터종 체험·사물치기 체험
- 신라 전통회화·재연과 아경 연출
- 50여 가지의 신라문화 체험
- 매일 특별한 힐링 콘서트

주최 BBS 불교방송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주북도, 경주시, 불교신문,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53-427-5114

# 泰華禪學大辭典

## 세계 最多 표제어를 수록한 漢文 선학사전

- 천안 平心寺 淨圓스님이 평소 閱藏, 譯經, 編著 과정 중 각종 燈史·語錄·清規 및 《祖庭事苑》·《禪林疏語考證》·《禪林象器箋》 등에서 수집한 詞目에 중국·대만·일본·한국 4국에서 발행한 현대 불교사전류 20종을 대조 참조하여 엮음.
- 표제어에 한글음 병기, 배열순서는 첫째 한자 부수, 둘째 한글 가나다순.
- 표제어 33,475 예문 25,899 補註 1,200여 개.
- 부록 : 서역·중국·한국·일본의 禪燈 系譜 略圖 (57쪽)

3책 (3,000쪽). 번체자. 12포인트.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30만원. 잔량 70부.

구입문의 : 041)566-7503 평심사

입금 : 우체국 311787-02-000518 (김호열)

- 《祖庭事苑》·《禪林頌句集》·《五宗錄》(원문 및 역주) 각 10만 원.
- 《大藏辭苑》 50만 원. 《碧巖錄》 (1996 초판, 手書, 2책) 20만 원.
- 예약접수 : 《禪門拈頌集標註》(2책 인쇄중) 20만 원.

